

# 영어 관사의 문법: 국내 관사 교육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관사 교육 기본 모형의 모색<sup>1)</sup>

한 학 성

본 논문에서는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의 내용 및 국내 관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국내 영어 교육이 주목하여야 할 관사 관련 핵심 사항을 나름대로 설정함으로써 영어 관사와 관련한 국내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에서는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영어에서 관사가 차지하는 비중 및 한국인들이 관사와 관련하여 범하는 오류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밝혀 관사의 중요성 및 어려움을 밝히도록 하겠다. 2에서는 국내에서의 관사 교육 실태 및 문제점을 형태별로 설명한 후 3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하여야 할 관사 관련 핵심 사항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 1. 관사의 중요성

### 1.1. 한국인과 관사

영어의 관사는 부정 관사 *a/an*과 정관사 *the*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한국인들이 영문법을 배울 때 대개 맨 처음 배우게 되는 어휘들이다. 이렇게 3개 정도의 어휘에 불과한 영어 관사는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영어 구사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킨다. 영어 관사의 문제는 물론 영어 작문시에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영어 독해의 경우에도 관사가 중요한 의미적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번역이 되는 수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한 잘못의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한 채 틀린 번역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에 대한 예로 다음을 보도록 하자.

---

1) 본 연구는 1993년도 경희대학교에서 지급된 개교 45주년 기념 사업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부교수 및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 (1) Love at First Sight: Does the Love Last?

(1)은 어느 수필의 제목이다. 이 제목의 부제인 *Does the Love Last?*는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뜻이 아니다. 부제의 *Love* 앞에 있는 정관사 *the*는 이 사랑이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된 특정한 종류의 사랑, 즉 *Love at First Sight*를 의미함을 표시해 준다. 따라서 이 부제의 정확한 의미는 “첫 눈에 반한 사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뜻이 된다. 물론 (1)과 같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경우는 그래도 이러한 유의 정관사에 주목하기가 쉽다. 그러나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이러한 관사류에 주의를 기울일 확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이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다음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 (2) It takes more calories to eat a piece of celery than the celery has in it to begin with. Therefore, the vegetable is included in most weight-loss diets.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2)와 같은 문장의 번역을 크게 어려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두번째 문장의 *vegetable*을 단순히 ‘채소’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vegetable* 앞의 정관사 *the*는 이 *vegetable*이 일반적인 의미의 채소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채소, 즉 *celery*를 의미함을 표시해 준다. 따라서 (2)의 의미는 *celery*라는 채소에 포함된 칼로리가 그것을 먹는 데 드는 칼로리보다 적기 때문에 바로 이 *celery*가 대부분의 다이어트 음식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일반적인 채소가 다이어트 음식에 포함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의 예에서도 관사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He was trying to warn that there was a leopard about and to say that all night long he had been threatened by {  $\phi$  } animal.  
 { an }  
 { the }

(3)의 맨 마지막에 있는 *animal*이라는 단어 앞에 아무런 요소가 나오지 않을 때와 부정 관사가 나올 때, 그리고 정관사가 나올 때가 각각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우선 명사 *animal* 앞에 아무런 요소도 나오지 않을 때는 비문법적이다. 이는 영어에서 명사의 성격과 관사 사용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animal*처럼 소위 셀 수 있는 명사(countable noun)의 경우에는 그 앞에 부정 관사나 정관사 혹은 그에 상당하는 어휘가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사가 반드시 복수형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인 *animal*이 단수형이면서 앞에 아무런 관사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항상 비문법적이며 이는 뒤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영어 관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된다. 두번째로 *animal* 앞에 부정 관사가 나올 경우는 주어진 문맥만 가지고는 그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의미는 그가 주위에 표범이 있다는 것과 또한 밤새 어떤 동물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는 의미로서 표범이 그가 위협을 당한 바로 그 동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일 *animal* 앞에 정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가 밤새 위협을 당한 동물이 바로 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 관사와 정관사는 중요한 의미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기가 쉽다. 즉 (3)과 같은 예문을 해석할 경우 많은 교육 현장에서 *animal* 앞에 관사가 없으면 틀린다는 사실 자체가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 관사나 정관사 공히 해석상 별다른 차이를 가져 오지 않는 것처럼 넘어 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리고 또한 정관사의 의미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경우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정관사 용법을 등한시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3)의 *the animal*을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보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 *a leopard*를 정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만일 이처럼 (3)의 *the animal* 자리에 *a leopard*를 집어 넣는다면 이 때는 앞에서 언급된 *leopard*와 뒤에서 언급되는 *leopard*가 동일한 *leopard*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바로 뒤의 *leopard* 앞에 사용된 부정 관사 때문이다. 그런데 (3)의 *the animal*은 아무 *leopar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언급된 *leopard*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때는 반드시 *the leopard*라고 써야 한다. 물론 *the animal*을 다른 말로 대체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a leopard*라고 답을 써도 틀렸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이 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관사를 사용하여 *the leopard*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의 *the animal*의 *the*는 우리 나라에서 정관사의 용법을 가르칠 때 흔히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될 때 정관사를 사용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임도 말해 준다. 즉 (3)에서는 *animal*이라는 단어 자체는 앞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예를 하나 더 살펴 보기로 하자.

(4) Scinece is finding things out, and in that sense history is  
a science.

위의 문장에서 앞에 나온 *science*는 관사 없이 사용되었으나 뒤에 나오는 *science* 앞에는 부정 관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에 나온 *science*는 '과학 일반'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어

부정 관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어느 특정 과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정관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 나온 *science*는 *history*가 곧 '과학 일반'이라는 말이 아니라, *history* (여기서는 '역사'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 연구', 즉 '사학'의 의미임)가 과학의 한 분야라는 의미이므로 부정 관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과학 일반을 의미할 때의 *science*는 셀 수 없는 명사로서 부정 관사가 나타날 수 없으나 과학의 한 분야라는 의미의 *science*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정 관사가 사용될 수 있다.

관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뒤에서 하겠지만 일단 이제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영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 관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작문의 경우 관사는 더욱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는데 우리 나라의 영작문 교육 현장에서조차 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작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온 전임 교수들은 대개 문학이나 어학 등의 전공 과목을 담당하고 영작문 같은 도구 과목들은 오히려 공부량이 적은 시간 강사에게 맡기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영어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경우 영작문 과목은 대개 모범 답안이 있는 관용어 중심의 국문 영역식 수업이 되기 쉽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특정 단어나 표현의 영역에 급급하여 관사 등의 기능어들은 소홀히 다루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작문(즉 번역과 구별되는 의미의 진정한 글짓기)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작문이라는 것이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영작문과 관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는 곤란하다. 다만 다음 절에서 영어에서 관사가 얼마나 자주 문제되는가를 논의할 때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1.2. 관사의 빈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관사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관사의 어휘가 *a/an, the*와 같이 몇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사의 용법은 사실 이들 어휘뿐만이 아니고 과학 일반을 의미하는 *science*처럼 단수형이면서 관사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경우(즉 무관사)와 또한 관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명사는 복수형이 되어야 하는 경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사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5) 영어의 관사

- (i) a/an + 명사 (단수형)
- (ii) the + 명사 (단수형 및 복수형)
- (iii)  $\phi$  + 명사 (단수형)
- (iv)  $\phi$  + 명사 (복수형)

(5)의 (i)과 (iv)는 모두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들로부터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앞에 관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복수형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화를 도출해 낼 수 있다. (5ii)는 셀 수 있는 명사 및 셀 수 없는 명사 공히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정 관사는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관사의 사용은 명사의 가산성과는 다른 별도 요인의 지배를 받음을 보여 준다. 이 별도 요인이 무엇인지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해당 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이를 영어로는 *reference*라고 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자. (5iii)은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5i)-(5iv)의 각각의 특징은 추후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sup>2)</sup>

그런데 (5)의 개략적인 설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관사는 해당 명사의 가산성 및 확인 가능성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관사는 명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관사의 문제는 명사가 등장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영어 문장에서 명사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는 관사가 생각보다 훨씬 빈번히 문제가 되는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예문 (2)를 다시 보도록 하자.

- (2) It takes more calories to eat a piece of celery than the celery has in it to begin with. Therefore, the vegetable is included in most weight-loss diets.

위의 예문은 관사를 빼면 모두 25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 중 8개가 명사 혹은 대명사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 중 20%가 관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관사는 수많은 어휘 중의 2-3 개 어휘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쓰거나 읽을 때마다 대략 4-5 단어 중 한번은 관사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빈도가 극히 높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의 편집자인 John Sinclair는 정관사 *the*가 영어에서 가장 빈번히 사

2) 이는 즉 무관사도 부정 관사나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관사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용되는 어휘이며 *a/an/the* 등의 관사가 모든 영어 텍스트의 8.5%를 차지한다고 말하였다.<sup>3)</sup>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사의 문제는 관사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관사의 문제는 8.5%보다 훨씬 많은 빈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의 예문에서 관사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6) a. (2)의 밑줄친 1,6은 대명사이므로 관사 없이 사용됨.  
 b. (2)의 밑줄친 2,8은 셀 수 있는 명사이며 *more, most*와 같이 복수의 의미를 가진 요소에 의해 각각 수식되므로 복수형이 됨.  
 c. 밑줄친 4의 *celery*는 물질 명사(*mass noun*)로 쓰였기 때문에 관사 없이 사용됨. 그런데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그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할 수 없어 밑줄친 3의 *piece*를 사용하여 양을 표시함. 이 때 *piece*가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부정 관사가 사용됨.  
 d. 밑줄친 5의 *celery* 앞에 붙은 *the*는 앞에서 언급된 *a piece of celery*를 의미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임. 이 때 만일 *the*가 없다면 이 때의 *celery*는 앞의 *a piece of celery*와는 무관한 일반 *celery*를 의미하므로 뜻이 잘 통하지 않게 됨.  
 e. 밑줄친 7의 *vegetable* 앞에 붙은 *the*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celery*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임.

### 1.3. 한국인의 관사 관련 오류 빈도

앞에서 우리는 영어의 관사가 어휘 수에 비하여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사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별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도 보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관사에 대하여 저지르는 오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필자는 1994년 2학기에 필자의 영문법 강좌를 수강한 경희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년 학생들에게 관사 수업을 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적절한 관사를 채워 넣는 Quiz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3) *The* is by far the commonest word in English, and with *a* and *an* makes up 8.5% of all text.

다음 문장들에는 해당 명사의 관사 표시 및 단복수 표시가 전부 생략되어 있다. 문맥에 맞도록 적절한 관사 및 단복수 표시를 하라. (필요한 관사는 명사 앞의 빈칸에 적고 관사가 필요 없을 때는  $\emptyset$  표시를 할 것. 또한 복수형이 되어야 하는 명사는 적절한 복수형 표시를 할 것.)

\_\_\_ English is \_\_\_ world's most widely used \_\_\_ language. \_\_\_ distinction is often made that depends on how \_\_\_ language is learned: as \_\_\_ native language (or mother tongue), acquired when \_\_\_ speaker is \_\_\_ young child (generally in \_\_\_ home), or as \_\_\_ nonnative language, acquired at \_\_\_ some subsequent period. Overlapping with this \_\_\_ distinction is that between \_\_\_ its use as \_\_\_ first language, \_\_\_ primary language of \_\_\_ speaker, and as \_\_\_ additional language. In \_\_\_ some country (particularly of course where it is \_\_\_ dominant native language), \_\_\_ English is used principally for \_\_\_ internal purpose as \_\_\_ intranational language, for \_\_\_ speaker to communicate with \_\_\_ other speaker of \_\_\_ same country; in others it serves chiefly as \_\_\_ international language, \_\_\_ medium of \_\_\_ communication with \_\_\_ speaker from \_\_\_ other country.

위의 글은 관사를 제외하면 110여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0개가 관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사의 비중은 약 27%에 이른다. Quiz에 참여한 수강생 46명의 평균 점수가 약 60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어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조차 관사 채워 넣기 문제 중 거의 절반 가까이를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Quiz 대상을 영어 능력이 훨씬 뒤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관사를 채워 넣으라는 지시 대신에 틀린 부분을 고치라는 식의 지시를 하였다면 오류 빈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영어 관사와 관련한 오류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김학엽 (1991), 박기화 (1994) 등에서도 필자가 약식으로 조사한 통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박기화 (1994)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대략 40-50%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를 중3 및 고1로 분류하여 살펴 보면 중3의 경우 대략 50-60%의 오답률을 보이고 고1의 경우는 30-40%의 오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오답률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김학엽 (199)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영어 능력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4 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영어 능력이 가장 낮은 1등급

학생들은 70%를 상회하는 오답률을 보이는 반면 영어 능력이 가장 높은 4등급 학생들은 10% 정도까지로 오답률이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습득도와 습득 순위에 대한 연구를 한 김영숙 (1986)도 한국 학생들의 관사 관련 오류가 약 40%에 이를을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를 한 신용진 (1980)도 조사 대상 항목 9개 중 관사 관련 오류 발생 빈도가 2위로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김학엽 (1991)과 박기화 (1994) 공히 영어 학습이 진행될수록 영어 관사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물론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김학엽 (1991)이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의 관사 오답률이 10%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와 박기화 (1994)가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중3과 고1 간의 오답률이 10% 정도의 차이를 보일 만큼 1년 사이에 큰 신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내에서의 영어 교육이 관사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진다고 특별히 영어 관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소개한 신용진 (1980)에 따르면 관사의 경우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고급 과정 학생의 오류 빈도가 초급 과정 학생의 오류 빈도에 비해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필자가 필자의 영문법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Quiz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들의 오답률이 15%-20% 정도였다. 아무튼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필자의 조사 결과나 김영숙 (1980), 김학엽 (1991), 박기화 (1994)의 연구 결과 공히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영어 관사 오답률은 50% 내외 혹은 그 이상이 됨을 충분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국내에서의 관사 교육 실태 및 문제점

국내에서의 영어 관사 교육은 대개 문법 책의 관련 단원을 다룰 때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비록 국내 영어 교육이 독해 중심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John Sinclair의 말처럼 영어로 된 텍스트의 8.5%를 점하는 관사는 독해시에도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관사를 그들이 읽는 영어 문장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문법을 위한 문법에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문법 책에서 소개하는 관사의 용법은 대개 천편일률적으로 관사의 특수한 용법에 치중되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사 관련 문제도 대개 이들 용법 중 어느 용법으로 쓰인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 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국내의 영어 교육 현장이나 문법 책에서 다루어지는 관사 관련 내용은 대개 관사의 종류, 부정 관사의 용법, 정관사의 용법, 관사의 위치와 생략, 그리고 고유 명사와 함께 쓰이는 관사에 대한 것 등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식의 관사 교육이 실제 영어 이해력 혹은 구사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2.1. 의미의 부정확한 이해

국내에서 관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첫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1에서 논의한 것처럼 관사의 유무, 혹은 특정 관사의 선택 등에서 기인되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예는 1에서 이미 소개하였으므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말의 어법상 영어의 관사를 눈여겨 보지 않아도 해석상 별다른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중요한 의미적 차이를 간과하게 만드는 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요구된다.

## 2.2. 잘못된 영어 문장을 구별 못하는 문제

국내에서의 관사 교육은 대개 관사의 특수한 용법과 관련된 것이며 관사와 관련된 문제도 대개 이러한 용법 혹은 그것과 관련된 의미적 특성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교육은 먼저 완벽한 영어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사용된 관사의 특징적 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관사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의를 주기에 부적당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관사를 잘못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영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의 교육으로는 한국인들의 관사와 관련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밑줄친 부정 관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대개 잘 안다.

- (1) a. Rome was not built in a day.
- b. A dog is a faithful animal.
- c.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 d. I write to her once a week.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관사가 잘못 사용되거나 명사형이 잘못 사용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워 한다.

- (2) a. \*Later we got an evidence of another leak.  
 b. \*I'd like some informations about trains, please.  
 c. \*He is looking for job.  
 d. \*John likes dog.  
 (문장 앞에 붙은 \* 표시는 해당 문장이 비문법적임을 나타냄)

위의 문제들은 사실 영어에서 명사의 가산성, 즉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간의 구분이 부정 관사나 복수형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즉 (2a,b)의 *evidence*나 *information* 같은 명사들은 소위 셀 수 있는 명사들이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들은 그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복수형을 사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2a,b)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의 두 형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a)만이 관사의 문제이고 (2b)는 관사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들 문제는 명사의 가산성에 기초한 동일한 양태의 문제인 것이다. (2a,b)를 영어 어법에 맞게 고치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2)' a. Later we got evidence of another leak.  
 b. I'd like some information about trains, please.

(2c,d)의 문제는 셀 수 있는 명사인 *job*이나 *dog*이 복수형도 아니면서 그 앞에 아무런 관사 혹은 관사 상당 어구도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2c,d)와 같이 셀 수 있는 명사를 아무런 관사적 표현 없이 단수형만으로 쓰는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2c,d)에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2a,b)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하거나 복수형을 쓰는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래도 언급을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2a,b)와 같은 문장이 잘못된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아 차리지 못함을 감안할 때 (2c,d)와 같은 유형의 실수가 한국인들의 영어 작문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부정 관사가 나올 때는 수의 개념이 대개 작용하여 '하나의', 혹은 '어떤'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관사 없이 복수형이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총칭(generic)의 의미가 강해진다. (2c)에서 그가 여러 직업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job* 앞에는 부정 관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2d)에서는 그가 어떤 특정 개 하나를 좋아한다는 의미라면 *dog*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일 그가 개라면 대개 다 좋아한다는 의미라면 관사 없이 복수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문맥(context)이나 상황(situation)에 의하여 John이 좋아하는 개가 어느 개인지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정관사를 사용하여야 한

다.

이렇게 보면 명사의 가산성은 부정 관사의 사용이나 복수형의 사용 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비문법적인 영어 문장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혼란이 국내의 영어 교육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어 관사 교육에서는 각 관사의 특정 용법도 중요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부정 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나 복수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를 관사 없이 단수형으로 사용하는 따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제까지의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명사의 가산성과 부정 관사 및 복수형의 사용

	올바른 형태	잘못된 형태
셀 수 있는 명사	a/an + 단수형 (예: a boy)  ϕ + 복수형 (예: boys)	ϕ + 단수형 (예: *boy)
셀 수 없는 명사	ϕ + 단수형 (예: evidence)	a/an + 단수형 (예: *an evidence)  ϕ + 복수형 (예: *evidences)

(ϕ은 관사가 없는 경우를 나타내며 단어 앞의 \* 표시는 문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단어의 형태가 잘못된 것임을 나타냄)

(3)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의 가산성에 따라 부정 관사와 복수형의 사용 가능성이 서로 반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 관사 및 복수형의 사용은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반면, 관사 없는 단수형의 사용은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부정 관사 대신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이 아닌 한 다 가능하다.

## 2.3. 덜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처럼 가르치는 문제:

## 대표 단수의 문제

관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아마도 다음에서와 같이 단수 명사 앞에 나오는 부정 관사나 정관사가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일 것이다.

- (4) a. A dog is a faithful animal.  
b.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 명사 단수형 앞에 부정 관사나 정관사를 붙여 전체를 나타내는 용법을 부정 관사나 정관사의 총칭적 용법(generic us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 관사나 정관사로 전체를 가리키는 총칭적 용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총칭적 의미가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4a,b)의 총칭적 용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관사 복수형 표현보다 덜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국내에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 (5) Dogs are faithful animals.

그리고 부정 관사나 정관사에 의해서만 총칭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는 교육 관행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도 부정 관사나 정관사를 사용하여야 총칭적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부정 관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부정 관사를 붙여 총칭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복수형을 총칭적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셀 수 없는 명사의 총칭적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명사의 총칭적 표현이 정관사 *the*에 의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마치 총칭적 표현이 부정 관사나 정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잘못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총칭적으로 나타내려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 앞에 아무런 관사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

- (6) a. \*I like a cheese.
- b. \*I like cheeses.
- c. I like cheese. (cheese 일반을 의미함)
- d. I like the cheese.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확인 가능한 특정 종류의 cheese를 의미함)

chees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6a,b)에서처럼 부정 관사나 복수형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6d)에서처럼 정관사의 사용은 가능하나 이 때는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확인 가능한 특정 종류의 cheese를 의미하므로 총칭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6c)에서처럼 관사 없는 단수형만이 총칭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부정 관사와 정관사의 총칭적 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역효과는 가능한 한 막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5)를 설명하면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가장 일반적인 총칭적 표현 방법은 관사 없이 명사형의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6)의 내용과 종합하여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가장 일반적인 총칭적 표현 방법을 알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게 된다.

(7) 명사의 가장 일반적인 총칭적 표현 방법

	관사	단, 복수형
셀 수 있는 명사	∅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	단수형

즉 셀 수 있는 명사 및 셀 수 없는 명사 공히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총칭적 표현 방법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이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거의 강조되지 않아 많은 한국인들이 총칭적 표현에 무의식적으로 부정 관사나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영작문 강의 경험을 통하여 관찰한 바에 따르면, 총칭적 표현으로 정관사보다 부정 관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좀더 강한 것 같은데 특히 부정 관사를 총칭적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들에서 부정 관사의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 (8) \*A lion is numerous in these parts.  
 (9) \*A tiger is becoming extinct.  
 (10) \*A kiwi abounds in this area.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동물 이름 등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하여 총칭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8)-(10)의 문장들이 잘못된 것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numerous, extinct, rare* 등의 형용사와 *abound, scatter, collect* 등의 동사들처럼 전체 종류나 복수를 지칭하는 술어들<sup>4)</sup>과 '부정 관사 + 명사 단수형'은 서로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8)-(10)의 문장들이 비문법적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 관사 대신에 정관사를 사용하거나 부정 관사를 빼고 명사형을 복수형으로 고쳐야 한다.

- (8)' a. The lion is numerous in these parts.  
       b. Lions are numerous in these parts.  
 (9)' a. The tiger is becoming extinct.  
       b. Tigers are becoming extinct.  
 (10)' a. The kiwi abounds in this area.  
        b. Kiwis abound in this area.

즉 소위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도 부정 관사에 의한 총칭적 표현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덜 일반적이고 제약이 많으므로 사용에 주의할 요한다는 것이다.

#### 4. 기계적인 교육 때문에 예외를 무시하는 경우:

서수나 최상급 앞의 정관사 the 사용 문제

다음은 민권 운동가로 유명한 Martin Luther King 목사의 *Three Ways of Responding to Oppression*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 (11) A second way that oppressed people sometimes deal with oppression is to resort to physical violence and corroding hatred.

위의 글에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second*라는 서수 앞에 정관사가 아니고 부정 관사가 사용된 점에 의아해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정관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4) Hawkins (1978)는 이러한 술어들을 class predicates라고 불렀음.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King 목사가 특정한 세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나씩 나열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흔히 서수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교육하는 데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국인들이 (11)과 같은 문장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중 하나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비록 *second*가 서수이기는 하지만 (11)에서와 같이 부정 관사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서수 앞에 부정 관사가 나오는 것은 항상 틀린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다음은 서수 앞에 부정 관사가 나올 수 있는 예이다. 주어진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수와 명사가 일종의 복합 명사를 형성해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기능할 때 주로 부정 관사가 나타난다.

- (12) a. It was a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 b. The answer is not to ignore a first child.
- c. a first course in German
- d.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a foreign language)
- e. A second/third boy entered the room. (= another one, one more)
- f. Now, it seemed there might be a third choice.

또한 최상급 형용사의 경우도 *best friend*나 *best seller*와 같이 복합 명사로서 거의 일반 명사화한 것들 앞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 관사가 나올 수 있다.

- (13) a. Is that what a best friend is for?
- b. You ought to write a novel about it, could be a best seller.
- c. a best buy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only*나 *last* 등 흔히 유일한 사물을 지칭하므로 정관사 *the*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지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합 명사적 표현을 이룰 때는 부정 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 (14) a. He is an only child.
- b. He is an only son.
- c. He paid a last visit to America.
- d. We've taken a wrong turn.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선 국내의 영어 관사 교육은 특정 관사의 특수한 용법에만 치중하여 무엇보다도 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비문법적 영어 표현의 가능성을 등한시함으로써 영어 작문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또한 독해시에도 관사로 인한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용례에 대한 기계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보다 일반적인 표현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용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영어 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사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영어의 종합적인 이해 및 구사에 관사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 영어 교육이 이를 제대로 훈련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은 최소한 확립하였다고 생각한다.

### 3. 국내 영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사 관련 핵심 사항

영어 관사의 문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 관사와 정관사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다. 물론 관사의 문제가 부정 관사와 정관사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문제일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는 관사 다음의 명사가 가리키는 지시 내용(reference)이 문맥 또는 기타 이유로 결정되어 있을 때 (즉 definite할 때)는 정관사(definite article)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 (즉 indefinite할 때)는 부정 관사(indefinite article)을 쓸 때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일 경우로만 국한된다.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부정 관사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 경우에도 당연히 부정 관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정 관사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 두 경우에도 정관사는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사의 문제가 부정 관사와 정관사 중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 관사는 부정 관사의 영어 이름인 *indefinite article*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즉 *indefinite*하다는) 뜻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명사의 수(number)가 단수(singular)라는 뜻도 내포한다. 그런데 해당 명사의 수, 즉 단수 복수를 구분하기 위하여는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countable noun)인지 셀 수 없는 명사(uncountable noun)인지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의 문제가 부정 관사의 쓰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관사는 부정 관사와는 달리 수의 개념은 내포하지 않는다.<sup>5)</sup> 따

5) 영어 정관사의 이러한 특징은 관사가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어나 불어 등에서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정관사의 경우도 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또한 이들 언어에서는 부정 관사의 경우도 단수 복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다시 말하여 영어에서는 복수형 앞에는 부정 관사가 나올 수 없으나 이들 언어에서는 복수형 부정 관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영어 관사의 습득은 관사에 해당하는 문



라서 정관사는 부정 관사와는 달리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형 및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 복수형에 공히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관사의 문제가 단순히 부정 관사와 정관사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는 단선적인 문제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어 관사의 문제는 부정 관사와 정관사 중의 양자택일의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명사의 수(number)와 지시 내용(reference)의 결정 여부 (이를 영어로는 definiteness라고 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올바른 영어 관사 용법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관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관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

핵심 사항 I	수의 문제와 관련한 명사의 가산성
핵심 사항 II	지시 내용의 결정 여부 문제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 두 사항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 3.1. 핵심 사항 I: 수의 문제와 명사의 가산성

국내에서의 영어 관사 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사, 특히 부정 관사의 사용이 해당 명사의 수, 나아가서는 가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건성으로만 다루고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데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관사의 문제는 명사가 등장할 때마다 대두되는 것이므로 영어 독해시 반드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관사는 일단 옮겨 쓰여진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상으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므로 해당 명사의 성질에 따라 부정 관사의 사용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실제 영어 문장에서 확인하고 훈련 받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식의 독해 학습을 거친 학생들이 영어 작문시 해당 명사의 성질에 따라 부정 관사의 사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어 작문을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사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첫번째 핵심 사항은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를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분, 즉 명사의 가산성이다. 그런데

---

법 요소가 없는 한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관사가 있는 스페인어나 불어 화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분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통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따위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문제를 덜 느끼는 경우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여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바로 이러한 경우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3.1.1. 한국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이나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식 감정으로는 셀 수 있는 명사일 것 같으나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일 때이다. 앞에서도 예로 든 바 있는 *evidence*나 *information*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즉 우리말식 어법으로는 '여러 증거들'이나 '많은 정보들'에서처럼 '증거'나 '정보'를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several evidences*나 *many informations* 등으로 잘못 말하거나 쓰는 경우이다. 특정 명사의 가산성은 이렇게 관사라는 품사 자체가 없는 한국어와 영어 간에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관사가 있는 언어간에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가산성과 관련한 특징적 양태를 보이는 영어 단어들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다음의 단어들은 이렇게 한국인들이 셀 수 있는 명사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기능하는 영어 단어들이다.

#### 한국인들이 셀 수 있는 명사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 영어 단어들

*advice, baggage, behavior, courage, equipment, evidence, food, furniture, homework, information, luggage, money, news, research---*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잘못된 것이다.

\*She gave me a good advice/ many good advices.

(cf. She gave me some good advice.)

\*I bought a furniture/ several furnitures.

(cf. I bought a piece of furniture.)

\*It's a useful equipment.

(cf. It's a useful piece of equipment.)

\*There was no room in the car for all our luggages.

(cf. There was no room in the car for all our luggage.)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부정 관사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복수형의 사용도 함께 금지된다.

### 3.1.2. 추상 명사이면서 셀 수 있는 명사

국내에서는 명사의 가산성을 추상 명사(abstract noun)와 비추상 명사(concrete noun)의 구분과 연관지어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 비추상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것들 중 *baggage, equipment, food, furniture, luggage* 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므로 분명히 추상 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 특히 우리가 물질 명사(mass noun)라고 부르는 *water, grass, milk, bread, sugar, paper* 등은 추상 명사가 아니지만 모두 셀 수 없는 명사들이다. 따라서 추상 명사가 아닌 것은 모두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식의 일반화는 부정확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상 명사는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인가? 물론 추상 명사의 대부분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 그러나 추상 명사 중에도 다음에서 보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한다. 따라서 추상 명사 여부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여부를 결부시키는 것은 어느 쪽으로나 부정확한 것이다.

#### 추상 명사이면서 셀 수 있는 명사들

effect, idea, issue, method, plan, problem, scheme---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the effects of an illness

I experienced problems in finding the right accommodation.

또한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minute, hour, day, week, month, year* 등과 중량을 나타내는 *ounce, pound* 등 및 거리를 나타내는 *inch, foot, yard, mile* 등도 비추상 명사(concrete noun)는 아니지만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한다.

### 3.1.3. 양성 명사

영어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아마도 동일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시에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쓰이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명사들을 우리는 양성 명사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우선 이러한 양성 명사의 예로서 다음을 보도록 하자.

Dave baked a cake.

We had cake for supper.

위의 문장은 *Dave*가 둥그런 케이크 한 덩어리를 구웠다는 뜻이다. 이렇게 둥그런 케이크는 셀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단수형에는 부정 관사가 나와야 하고 복수의 의미일 때는 *cakes*라고 할 수 있다. 만일 *Dave*가 케이크를 두 개 구웠다면 *Dave baked two cake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문장에서는 *cake* 앞에 부정 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때는 *cake*가 물질 명사로 사용된 것으로서 저녁 식사로 케이크라는 음식을 먹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는 물론 케이크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이름으로서의 케이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나 양의 개념은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자가 몇 조각의 케이크를 먹었을 경우나 여러 덩어리를 케이크를 먹었을 경우 공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다음을 더 보도록 하자.

Has this bread been alongside onions?/It tastes of onion.

Have an apple./Is there apple in this salad?

왼쪽의 *onions*와 *an apple*은 각각 온전한 양과 덩어리들과 사과 한 알을 의미하므로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오른쪽의 *onion*과 *apple*은 덩어리로서의 양파나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재료, 즉 물질 명사로서의 양파나 사과를 의미하므로 부정 관사나 복수형이 사용되지 않았다. 즉 *It tastes of onion*은 “그것이 양파 맛이 난다”는 의미이고 *Is there apple in this salad?*는 “이 샐러드 안에 (재료로서의) 사과가 들어 있느냐?”는 의미이다. 이 때의 *apple*은 일반적으로 잘게 썰어진 사과를 의미하게 되나 만일 *apple* 앞에 부정 관사를 사용하여 *Is there an apple in this salad?*라고 말하면 이 때는 “이 샐러드 안에 온전한 사과 한 알이 들어 있느냐?”하는 의미로 변질된다.

이와 유사한 예를 좀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Someone threw a stone at her. (돌맹이 하나)

The house is built of stone. (건축 자재로서의 돌, 즉 이 때는 집이 석조라는 것을 의미함)

The lambs were eating quietly. (온전한 동물로서의 양을 의미함)

There is lamb on the menu. (양고기를 의미함)

다음의 예들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 본 것과 유사한 이유로 셀 수 있는 명사 및

셀 수 없는 명사로 공히 쓰이는 양성 명사들이다.

bone, brick, cabbage, chicken, chocolate, cord, egg, fish, fruit, lettuce, muscle, pie, potato, pudding, ribbon, rock, rope, string, thread, wire ---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 온 양성 명사들은 대개 의미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각각의 온전한 개체를 의미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되고 재료 등을 의미할 때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양성 명사로 쓰이는 것들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의미적 연관성이 훨씬 떨어져 아예 별개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들도 있다.

--- wrap it up in brown paper (종이)/--- read an evening paper (신문)  
 --- press clothes with an iron (다리미)/use tools of iron (철)

위에서와 같이 *paper*와 *iron*은 물질 명사로 쓰일 때는 각각 '종이' 및 '철'을 의미함에 비하여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일 때는 각각 '신문' 및 '다리미'를 의미하여 그 의미적 연관성이 크게 떨어져 별개의 단어처럼 보인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양성 명사들은 다음과 같다.

an ice (an ice-cream, 특히 영국 영어에서)/ice (얼음)  
 The lights came on. (등)/the speed of light (빛, 광선)  
 a small business (회사)/to do business (사업)  
 She was a beauty in her youth. (미인)/She had beauty in her youth. (미모, 아름다움)  
 I've been here lots of times before. (회수)/I haven't got much time. (시간)  
 The rooms at Watermouth are all like this. (방)/There wasn't enough room for everybody. (공간, 여지)

*part*의 경우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 명사로 쓰일 수 있다.

Only a part of his story is true. (= a number of things)  
 Only part of his story is true. (= less than the whole)

## 3.1.4. 가산성의 전성

그런데 영어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특정한 의미 관계를 보이며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convert)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가산성의 전성을 보일 수 있는 명사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앞에서 다룬 양성 명사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가산성의 전성이 주로 *a unit of, a type of, an instance of* 등처럼 예측 가능한 의미 관계를 보이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에서 다룬 양성 명사의 경우와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3.1.4.1. *a unit of*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가산성의 전성

물질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이나 이러한 물질 명사가 용기(container)에 들어 있을 때 그 용기에 들어 있는 일정한 단위(unit)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offee*는 물질 명사로 사용될 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 관사를 사용하거나 복수형을 사용하면 안된다.

\*A coffee is not a good drink for children.

\*Coffees are not good drinks for children.

Coffee is not a good drink for children.

그러나 *coffee*가 *a cup of coffee*의 의미로 쓰일 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 관사 및 복수형이 모두 가능해진다.

Would you like a coffee?

Two coffees, please.

이러한 종류의 가산성의 전성을 보이는 명사들은 주로 마실것(drinks)을 나타내는 명사들로서 각 마실것의 종류에 따라 단위(unit)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a beer?*에서 *a beer*의 경우는 *a glass of beer, a bottle of beer* 등을 모두 의미할 수 있으나 *Give me a whisky*에서의 *a whisky*의 경우는 *a small glass of beer*만을 의미할 수 있고 *a bottle of glass*는 의미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a sugar*의 경우에는 *a lump of sugar*나 *a spoonful of sugar*를 의미하므로 *glass*와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다음의 명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가산성의 전성을 보일 수 있는 추가 예이다.

brandy, Coke, gin, juice, lemonade, milk, rum, sherry, tea, vodka  
yoghurt ---

3.1.4.2. *a type of*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가산성의 전성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인 물질 명사가 종류(*type*)의 뜻을 나타낼 때도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될 수 있다.

They drank three or four different wines at every meal.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됨)

위 문장에서 *wines*는 여러 종류의 *wine*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때는 다음에서와는 달리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여 복수형이 된 것이다.

To make wine, grapes are fermented with water and sugar.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됨)

즉 위에서는 *wine*이 *wine* 일반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셀 수 없는 명사인 셈이고 따라서 부정 관사 및 복수형이 모두 불가능하다. 다음은 *wine*이 *a type of wine*의 뜻으로 쓰여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 추가 예이다.

a wine of the region  
I was impressed by a wine from Korea  
the wines of Italy

다음은 *win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가 *a type of*의 뜻을 나타내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가산성이 전성되어 부정 관사 혹은 복수형이 사용된 예이다.

This is a better bread than that one.  
It's an article about French cheeses.  
Every year she makes four jams.  
New plastics are constantly coming on the market.  
I'm reading about the use of metals.  
Which of these medicines would be best?

다음은 이렇게 *a type of*의 뜻으로 가산성이 전성될 수 있는 명사의 추가 예이다.

brandy, coffee, detergent, lager, meat, paint, perfume, sauce, soup, tea,  
wood ---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 unit of*의 뜻으로 가산성이 전성될 수 있는 명사라고 소개한 *coffee, beer, brandy, whisky* 등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type of*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사들이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 경우에 독자들은 이들이 *a unit of*의 뜻으로 사용된 것인지 *a type of*의 뜻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re were many beers on sale at the festival.

The best whiskies come from Scotland.

### 3.1.4.3. *an instance of*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가산성의 전성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될 수 있는 또다른 가능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instance/example)를 의미하게 될 때이다.

Noise can make you ill. (일반적인 의미의 소음)/

We heard a sudden noise.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소음)

위의 문장에서 *noise*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음'을 나타내는 말로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 이에 비해 아래 문장의 *noise*는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소음을 들었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인 소음을 의미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성은 우리가 앞에서 본 단위(unit)나 유형(type)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전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좀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lice is good at painting./That is a nice painting.

Life is too short to do everything./She had an interesting life.

Peace isn't just the absence of war./The administration is planning a new war on drugs.

--have much difficulty/ --- have many difficulties

This job requires experience./He's had many odd experiences.

I never wanted marriage./--- a marriage which was superficially a failure  
-- to put the issue beyond doubt/-- without a shadow of a doubt



### 3.1.4.4. 기타 가산성의 전성

그런데 이러한 가산성의 전성은 한정적 형용사(restrictive modifier)의 수식을 받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tred*는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나 *passionate*과 같은 형용사에 의해 수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처럼 부정 관사가 앞에 나올 수 있다.

How long can hatred last?/ --- a passionate hatred of feminists

이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a type of*의 의미 관계로 전성된 경우와 유사한 것인데 앞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부정 관사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전성을 보이는 예들이다.

--- in a voice choked with anger/--- working up a passionate anger  
 He had neither charm nor humor./--- a certain quaint charm  
 They like yellow./It was painted a bright yellow.

두번째로는 일반인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a grass, grasses (식물학자들 사이에서)  
 an ash, ashes (형사 혹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a gas, gases (화학자들 사이에서)

세번째로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로 전성하여 사용하는 수가 있다.

Ducks are a type of bird.  
 Bees, ants, and mosquitoes are varieties of insect.  
 Lions and tigers are both types of big cat.  
 Roses and carnations are types of flower.  
 Cars, lorries, and buses are different kinds of vehicle.

이제까지 우리는 관사 관련 두 가지 핵심 사항 중 첫번째 사항인 명사의 수의 문제와 가산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부정 관사와 복수형의 사용 가능성은 해당 명사의 가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즉 셀 수 있는 명사에만 가능하므로) 관사

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해당 영어 명사가 가산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다시피 명사의 가산성이 어떤 단순한 기준에 의하여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만의 특이한 양태를 보일 때가 많으며 또한 양성 명사 및 가산성의 전성 등이 부정 관사의 사용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 관사 교육의 맹점도 바로 이러한 기본과 관련된 훈련을 도외시한 채 관사의 특수한 용법에만 매달린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관사와 관련한 두번째 핵심 사항인 지시 내용의 결정 여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자.

### 3.2. 핵심 사항 II: 지시 내용의 결정 여부 문제

우리가 핵심 사항 I로 설정한 수와 가산성의 문제는 부정 관사 및 복수형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고 그 기준은 해당 명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대개 해당 명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두번째 핵심 사항으로 설정한 지시 내용의 결정 여부는 해당 명사의 의미 자체는 차이가 없으나 그 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내용이 문맥 또는 기타 사항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므로 해당 단어 의미 외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정관사 *the*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사는 해당 명사의 가산성이나 수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지시 내용만 결정되어 있으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명사의 가산성 및 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부정 관사와는 다른 층위의 작용인 것이다.

#### 3.2.1. 문맥(context)상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3.2.1.1. 소위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반복하는 경우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명사의 지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명사의 지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th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예로 여러 국내 참고서에 수록된 예이다.

I met a boy, and the boy showed me the way.

그러나 Berry (p.24)에 따르면 위에서와 같이 바로 연이어 반복되는 명사에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위에서와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와 같이 대명사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I met a boy, and he showed me the way.

또한 Christophersen (1939)에 따르면 위에서와 같은 경우에 두번째 반복되는 명사를 굳이 사용할 경우 정관사 the보다는 this 등의 지시 대명사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king. { ?The king } had three daughters.  
 { This king }

다음과 같은 예를 소개하는 영문법 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의 경우가 '정관사 + 명사'의 경우보다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I have bought a book. { ?The book } cost \$20.  
 { It }  
 { which }

Just then he smelled a dog and heard { ?the dog } curiously sniffing.  
 { it }

따라서 앞서 언급된 명사를 뒤에서 반복하는 경우에 the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훨씬 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법으로서 대부분 앞에 나온 명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반복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But then I came on a man playing a harp. It was a black harp --- and the man was dressed as a gorilla!

Suddenly Marsha heard what sounded like a fight between a man and a woman. She tensed, prepared to call help, till she realized that the woman seemed to be getting the better of it.

또한 해당 명사에 다른 요소를 첨가할 때도 정관사를 사용하게 된다.

The full development of an idea may well take years of hard work but the idea itself may arrive in a flash of insight.

### 3.2.1.2. 앞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I:

다른 단어로 앞서 언급된 명사를 지시하는 경우

앞절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반복될 때 *the*를 사용한다는 식의 기술에 일정한 단서 조항이 필요함을 보았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명사 앞에는 *the*의 사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반복될 때 *th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시 내용이 결정된 명사 앞에 *the*를 붙일 수 있다는 큰 원칙의 한 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서도 문맥상으로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수가 있다.

그 첫번째 방법은 앞에서 나온 명사를 다른 명사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실 1에서 이미 살펴 본 바가 있는데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다음에서와 같이 관련 예문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자.

It takes more calories to eat a piece of celery than the celery has in it to begin with. Therefore, the vegetable is included in most weight-loss diets.

He was trying to warn that there was a leopard about and to say that all night long he had been threatened by the animal.

위의 두 문장에서 *vegetable*이나 *animal*은 각각 해당 문장에서 앞서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사 앞에 정관사 *the*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물론 *vegetable*이 앞의 *celery*를 지시하고, *animal*이 앞의 *leopard*를 지시하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celery*는 *vegetable*의 한 종류이고 *leopard*는 *animal*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뒤에 나온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와 동일한 지시 내용을 가져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뒤의 명사가 의미적으로 앞의 명사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앞의 명사가 속한 종류(class)를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 중요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예를 추가로 보여 준다.

You've never been to London before so how do you know the place so well?  
 My parents bought me a piano but I don't like the thing.

물론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뒤에 나온 명사의 지시 내용이 앞서 언급된 명사와 동일한 한 얼마든지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다.

Take the case of H. J. Heinz. The Pittsburgh-based food processor doesn't catch its own tuna, but ---  
Salman Rushdie is fed up. Four years after Iran inflicted a death sentence on the British author for his novel "The Satanic Verses," the writer has decided to come out of hiding and get on with his life.

3.2.1.3. 앞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II:

앞서 언급된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사를 뒤에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3.2.1.2에서 살펴 본 것은 앞에서 언급된 명사적 표현을 가리키는 표현이 뒤에 나올 경우 이 표현 앞에 *th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와 유사하기는 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the*의 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When she tried to open her front door, she couldn't get the key into the lock.

위의 문장에서 *key*나 *lock*에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관사 *the*는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위 의 문장에서 *key*와 *lock*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명사들은 이 문장에서 한번씩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정관사의 용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 각각의 명사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명사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는 국내에서 정관사의 용법과 관련하여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 준다.

위에서 *key lock*은 앞에 나온 *front door*와 관련(association)되어 있는 것으로 정관사 *the*는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앞에 나온 동일한 형태의 명사나 혹은 형태는 다르나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명사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뿐만이 아니고 위의 경우처럼 간접적(indirect)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위의 문장에서 *key*는 아무 열쇠가 아니고 *front door*를 여는 그 열쇠라

는 뜻으로 *the*를 사용한 것이며, *lock*도 아무 자물쇠가 아니고 *front door*에 붙어 있는 자물쇠라는 뜻으로 *the*를 사용한 것이다.

다음은 위와 같이 앞의 명사와 연관됨으로써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the*가 사용된 예이다.

- I went to the window again to try to smash the glass. (앞에 나온 window의 glass)
- He needed a whisky, but the bottle was empty. (앞에 나온 whisky의 bottle)
- She extended an arm, the hand full of grapes. (앞에 나온 arm의 hand)
- You shouldn't ask a question if you already know the answer. (앞에 나온 question의 answer)
- Then I saw a car parked by the side of the road. The driver was asleep. (앞에 나온 car의 driver)
- Before you go on a long journey in your car, check to make sure the tires have enough air in them. (앞에 나온 car의 tires)
- The man drove past our house in a car. The exhaust fumes were terrible. (앞에 나온 car의 exhaust fumes)
- What's the point in buying an expensive television if the picture isn't clear? (앞에 나온 television의 picture(화면))

### 3.2.2. 상황(situation)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3.2.2.1. 눈에 보이는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은 모두 해당 단어에 앞서 소개된 표현이 해당 단어의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 정관사 *the*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였다. 이들은 모두 실제 글 안에, 즉 문맥(context)상으로 해당 단어의 지시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문맥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더라도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 도중 어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자.

Pass the salt, please.

위의 *the salt*에서 *salt* 앞에 *the*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문장에서 *salt*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게 해 주는 표현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는 문맥상으로 *salt*의 지시 내용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의 문장은 식사 도중 식탁위에 놓여 있는 소금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바로 그 눈에 보이는(visible한) 소금을 건네 달라는 뜻이므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salt*의 지시 내용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식탁위의 소금임을 알 수 있어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말을 하는 상황(situation)에서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2.1절에서 우리가 논의한 문맥상으로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을 지시하기 때문에 사용된 *the*의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Doesn't the bride look beautiful?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보거나 가리키며)

The grass needs cutting. (정원에서 잔디를 보거나 가리키며)

Do you see the bird sitting on the lower branch? (숲속이나 정원에서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보거나 가리키며)

The judge has fallen asleep. (법정에서 판사를 보거나 가리키며)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듣는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어야 의사 소통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서 만일 이러한 예상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사 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Pass the salt, please*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Pass the soap, please*라고 말하면 항상 비누를 식탁위에 놓아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듣는 사람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시하기 위한 명사적 표현에는 반드시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장미가 만발한 정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이 때는 화자가 정원에 있는 장미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I like roses.

이 문장의 의미는 화자가 정원에 있는 특정 장미들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화자가 장미 일반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물론 화자가 장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원에 그렇게 많은 장미를 심었다는 뜻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위의 문장에서 *roses*가 지시하는 바는 장미 일반으로서 *roses*는 소위 총칭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만일 *roses*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 이야기하면 (즉 *I like the roses*라고 이야기하면 이 때는 화자가 정원 안에 있는 바로 그 장미들을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식의 *the*의 사용은 청자가 그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화자가 가정(assume)하고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화자가 잘못 판단하여 청자가 그 지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의사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도 있다.

Aren't the red roses lovely? What red roses? (듣는 사람이 화자가 의미하는 red roses를 보지 못하거나 어떤 red roses를 의미하는지 모를 때)  
 Have you fed the cat? Which cat? (듣는 사람이 화자가 의미하는 cat을 보지 못하거나 어떤 cat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

3.2.2.2. 눈에 보이지 않아도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I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눈에 보이는(visible한) 경우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지시 내용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the*를 사용할 수 있다.

When the policeman had gone, I remembered that I hadn't told him about the damaged window-pane.

위의 문장에서 *policeman*이 이미 가고 없으므로 이 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의 상황에는 *policeman*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눈에 이 *policeman*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글을 발화하는 화자나 청자의 마음(mind) 속에 가버린 *policeman*의 존재가 있고 바로 그 *policeman*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정관사를 사용한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사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이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Could we have the menu, please? (식당에서)

Where's the soap? (욕실에서)

Where's the cat?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있을 경우 식구에게)

또한 추상 명사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 지시 내용이 분명하면 다음에서와 같이 정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The music isn't very good, is it? (음악회에서)



3.2.2.3. 눈에 보이지 않아도 *the*를 사용하는 경우 II

앞에서는 주로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이러한 유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좁은 의미의 상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상황(wider situation)으로 확장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앞에서의 언급 없이 *the President*라고 발화하는 경우 실제 대화가 일어나는 협의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마다 *President*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지식(general knowledge)에 의거하면 이 때의 *President*란 결국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President*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므로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일한 표현을 한국에서 발화하는 경우는 물론 한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발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지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서 미국 사람이 *the President*라고 말하는 경우 이것이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될 때도 있다.

이러한 유의 정관사 사용은 다음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the government (발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속한 국가의 정부)  
 the Prime Minister ( " " 수상)  
 the hospital (각 도시나 마을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던 때에서 유래)  
 the station ( " " 역 " )  
 the theater ( " " 극장 " )<sup>6)</sup>

## 3.2.3. 유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

6) 그런데 Quirk et al (1985 P.269)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theater*와 같은 명사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다.

My sister goes to the theater every month.

그들에 따르면 위의 문장에서 *the theater*는 말하는 사람의 여동생이 매달 같은 극장에 갈 경우에는 어느 특정 극장을 지칭하겠지만, 그 여동생이 매달 가는 극장이 다를 경우에도 위의 문장을 말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the theater*가 특정 극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후자의 경우 *the theater*가 특정 극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장 혹은 연극이라는 제도(institu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와 구분하였다. 그들은 교통, 통신 수단 등 앞에 사용되는 정관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용법으로 분류하고 이를 영어로 *sporadic use*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theater*의 용법이 *hospital*이나 *station*과 마찬가지로 과거 각 도시나 마을에 극장이 하나밖에 없었던 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다.

또한 해당 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내용이 유일한 경우에도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the devil, the earth, the equator, the moon, the nadir, the north pole, the pope, the sea, the sky, the solar system, the south pole, the sun, the universe, the world, the zenith

이들 중 일부는 때때로 고유 명사처럼 간주되어 대명사로 시작하기도 한다.

the Earth, the Equator, the Pope, the Devil, the North Pole

### 3.2.4. 수식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3.2.4.1. 유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형용사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only* 등과 같이 수식을 받는 명사의 지시 내용을 유일한 것으로 결정해 주는 형용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He was the only doctor I knew.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first, following, last, main, next, opposite, present, principal, right, same, sole, ultimate, usual, wrong

그런데 우리가 2.4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함께 복합 명사처럼 기능하는 경우 이 복합 명사 전체가 하나의 보통 명사로 화하여 부정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수가 있다.

a first child, an only child, a last visit, a wrong turn

### 3.2.4.2. 최상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형용사의 최상급의 경우도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지시 내용을 유일한 것으로 결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된다.

Seoul i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Asia.  
This isn't the best camping country.

### 3.2.4.3. of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경우

다음에서와 같이 어떤 명사가 of에 의해 수식될 때도 지시 내용이 유일한 것으로 결정되어 *th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he is the mother of my best friend.

위의 *mother*의 지시 내용은 뒤에 나오는 *of my friend*에 의해 당연히 누구의 *mother*인지가 결정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mother*는 당연히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of에 의한 수식의 결과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정관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The height of Mont Blanc is 4807 meters.  
We were surprised by the size of the bill.  
At the bottom of the page it said 'Please turn over.'  
the President of Korea  
at the end of 1994  
at the top of page 221  
after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the title of the book  
the floor of the living room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of의 수식을 받는 경우는 항상 정관사를 써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of의 수식으로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될 경우만으로 국한 되고 다음에서와 같이 해당 명사의 지시 내용이 of의 수식을 받더라도 유일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정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John is a cousin of my best friend.

위에서 *cousin*은 비록 *of*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my best friend*의 사촌이 하나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마음 속에는 실제로 그의 *best friend*의 *cousin*이 여럿 있고 *John*이 그 여러 *cousin* 중 하나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of*의 수식을 받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의미적으로 유일한 경우 혹은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정관사 *the*를 쓰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of*의 수식을 받지만 부정 관사가 사용된 추가 예이다.

She's a woman of great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woman이 하나뿐일 수는 없으므로)

a child of six (여섯살 짜리 어린이가 하나뿐일 수는 없으므로)

a reflection of life today in England

a picture of a house

a student of English

마지막 세 문장의 *of* 이하는 마치 앞의 명사 *reflection*, *picture*, *student*의 목적어처럼 쓰였다. 이럴 때 그 가능성이 유일한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당연히 부정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영국 생활을 반영하는 가능성, 집을 그린 그림(혹은 집을 찍은 사진),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유일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 관사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서 이들이 유일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 때는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본장에서 다룬 사항들은 내용 그 자체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들을 문법 지식으로만 간주하고 이들을 실제 영어 독해시나 영어 작문시에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바로 우리 나라 영어 교육의 맹점이 있다. 따라서 영어 교사들은 영어 관사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본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핵심 층위와 관련하여 해당 영어 관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4.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인들이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범하는 오류의 형태 및 빈도와 이러한 오류의 원인인 국내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영어 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난 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내 영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사 관련 핵심 사항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

하려고 시도하였다. 관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선행된 후에 예외적이거나 특이성을 보이는 영어 관사의 용법을 다루는 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균형잡힌 영어 습득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숙. 1986. 「한국 학생의 영어 습득도와 습득 순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학엽. 1991. 「한국어 화자의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기화. 1994.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사 기능의 습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용진. 1980. 「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Berry, R. 1993. *Articles*, HarperCollins Publishers.
- Burton-Roberts N. 1976. On the generic indefinite article. *Language* 52.2: 427-48.
- Chesterman, A. 1991. *On defin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son, P. 1939. *The articles: A study of their theory and use in English*. Copenhagen: Munksgaard.
- Grannis, O. 1972. The definite article conspiracy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22.2: 275-89.
- Hewson, J. 1972. *Article and noun in English*. The Hague: Mouton.
- Jespersen, O.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I: Syntax*. London: Allen and Unwin.
- Kaluza, H. 1963. Teaching the English article to speakers of Slavic. *Language Learning* 12: 113-24.
- Kramsky, J. 1972. *The article and the concept of definiteness in language*. The Hague: Mouton.
- Quirk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Sommerstein, A. H. 1972. On the so-called definite article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3.2: 197-209.
- Yotsukura, S. 1970. *The articles in English: A structural analysis of usage*. The Hague: Mouton.